

## 문학의 즐거움은 한눈팔기로부터

《한눈팔기와 글쓰기》 펴낸 김화영씨

‘단순화’의 길로 열려 있다. ‘언어의 집짓기’라는 작품을 평가할 때 “충체적인 통일성의 구조로 파악해야 하지만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문학이란 형태 속에서 너무 심각하면 스스로 발목을 잡히기 십상”이라며 경직된 평론문학의 진부성을 비판한다.

김교수의 작가론 중심의 평론은 유연하고도 문학적 성찰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선 속에 들어 있는 두 편의 평론에서도 그는 “작품의 구조 형태를 공간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문학을 “언어로 짓는 집이면서 몽상의 집”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구조의 형태 속에 짜여지기를 거부하는 살아 있는 문학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문학을 ‘바람을 담는 집’으로 표현하기를 즐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향해온 문학의 길이 결코 가볍게만 느껴질 수는 없다. 다만 문학적 사유와 진지함 때문에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숨을 내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시와 산문, 서평, 그리고 냉철한 지성의 발톱을 드러내야 하는 평론까지도 ‘바람과 그리움의 집짓기’를 하듯이 그의 책은 ‘즐거움으로 가는 문학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 오완진 기자

자신의 문학적 편향을 “가볍고 아름다운 문학”이라고 말한 바 있는 김화영 교수(55, 고려대 불문과)는 문학이란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는 즐거움”이라고 역설한다. 목표에 매달려 변화하는 과정을 느끼지 못하는 문학은 이미 살아 있는 문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한눈팔기 문학을 내세우는 것도 “문학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진지하다보면 매 순간 주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작품선 《한눈팔기와 글쓰기》(나남)는 자신이 한눈팔며 걸은 문학적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한눈팔기의 문학 속으로 접어든 출발점은 시였다. “개인적인 변화(유학)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를 쓰지는 못했다”지만 그래도 째짤이 써온 시작 20편을 선보였다.

그의 시작들을 대하다 보면 가벼운 바람이 느껴지는 듯 경쾌하다. 무거운 중력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이 대립되는 가벼움의 이미지로 상승적 형태가 되어 나타난다. ‘바람’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는 시적 편향을 응축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문에서도 ‘가벼움’으로 향하는 문학적 편향은 계속된다. 눈여겨봐야 할 특징은 ‘공간의 감수성’이다. 그는 공간적 감수성이란 “진지한 문학에 함몰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한다.

자아세계를 의미하는 공간의 요소들은 어느덧 상상력의 자유로움으로 결합된다. 현실(작품)을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그의 문학적 상상력은 산문적 형태를 공간적 이미지의 형태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한, 그의 평론은 가벼움과 상응하는



##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물리학

《만득이의 물리퀴신 따라잡기》 펴낸 이공주씨

줄다리기 시험을 통해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배우고 배구경기를 통해 운동량, 다이빙을 하면서 중력위치에너지를, 엘리베이터에서 체중을 재면서 관성력을 공부한다. 2·3권도 똑같은 패턴으로 전자기학과 빛, 액체·고체·기체 등 물성을 다룰 예정이다.

“물리학에서는 각도 하나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직접 그렸습니다.”

전문가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처음 해본 그림작업이 흐뭇해서 이름 뒤에 ‘그림’을 꼭 표기해달라고 출판사에 특별부탁했다. 책을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리학과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할 도입부를 구상하는 일.

“힘든 작업에 힘을 주고 위로가 된 것은 제 딸아이와 조카들의 얼굴입니다. 이 아이들이 읽을 책이라는 생각이 제 작업을 도왔습니다.”

문제만을 기계적으로 풀게 하는 교육이 물리학을 재미없는 학문으로 만든다는 이교수는 엄마들과 선생님께 특별히 당부한다. 아이들이 물어오는 질문에 제발 “원래 그런거야”라는 대답만은 하지 말기를, 또 모르는 것을 물어도 찾아 대답해 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말이다.

— 이현주 기자

이화여대 물리학과와 이공주복 교수(39)가 《만득이의 물리퀴신 따라잡기》(현승)라는 재미있는 책을 펴낸 이유는 한가지, 물리학에 대한 편견을 깨보자는 것이다.

“올해 자연과학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겠다는 학생은 14명뿐입니다. 그리고 전공하는 학생들조차 물리학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부는 물론 인문과학부·사회과학부·체육대학 등 전체 계열을 망라한 교양과목 ‘자연과학개론’을 강의하면서 느낀 답답함이 문제의식을 싹틔웠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산문제는 잘 풀면서 원리를 설명하는 간단한 문제는 어려워하는 전공학생들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생활주변에서 느낀 과학적인 의문을 적어내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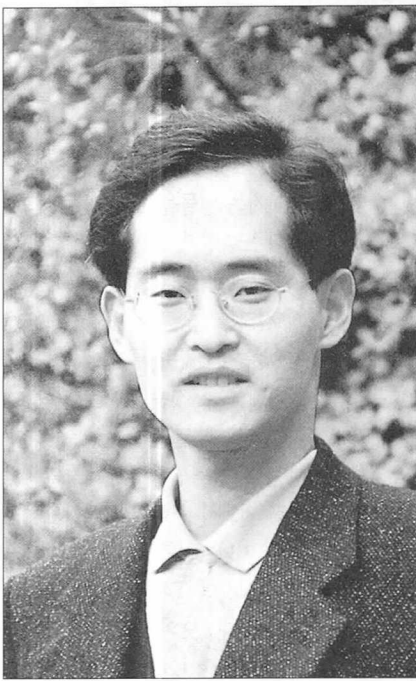
300개 정도의 질문이 나왔는데, 랩으로 몸을 싸고 에어로빅을 하면 살이 빠지는가 같은 평범한 의문이었다. 과학적 설명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문제와 물리학의 주요 원리를 접목시켜 설명해 봤습니다.”

과학을 쉽고 흥미롭게 해설한 책이 많이 나왔지만 책 한권에 물리·화학·생물까지 담아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이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물리’로만 3권을 기획했다. 이번에 펴낸 1권은 40개의 주제와 5명의 인물로 배우는 역학. 현행 고등학교 과정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만득이와 물리퀴신이 대화를 나누면서





## 역사를 의식하며 산 인물

《정도전을 위한 변명》 펴낸 조유식씨

역사의 범정에는 시효가 없다. 역사의 강물에 한번 발을 담근 자는 그 물줄기가 그치지 않는 한 언제나 새로운 증언자를 만나게 마련이다. 조선개국의 일등공신이면서도 태종 이후 조선사 500년 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삼봉 정도전. '정도전 죽이기'의 안개를 걷어내고 '민본주의'와 '선비정신'이라는 공정한 잣대로 정도전을 새롭게 평가한 증언자가 나타났다. 현직 《말》지 기자로서 《정도전을 위한 변명》(푸른역사)을 펴낸 조유식씨(34)가 그 주인공.

"3년 전 여의도 정당가에서 '한국정치의 세대교체'라는 문제를 취재하던 중 한 젊은 정치인으로부터 정도전을 살펴보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서점과 도서관을 뒤지며 정도전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의 평생을 재구성하는 일부터, 그 시절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추이를 추적하는 일까지 만만치 않은 고통을 해왔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몸을 사리지 않고 역사에 헌신했던 정도전이라는 인물에 매혹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도전의 최후의 날부터 시작해 여말선초의 권력교체기와 원명교체기의 국제정세, 그리고 그의 정치적 이상과 좌절 등을 추적한 이 책은 당대의 사건현장에 직접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사료에 대한 정밀한 천착과 속도감 넘치는 저널리즘적 문체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도전은 군주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실천한 합리주의자였으며, 열강들 사이의 힘의 공백을 이용해 만주수복을 도모한

국제전략가였다. 또한 문인정치시대를 꿈꾼 이상주의자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정도전은 당대적 안목에서 벗어나 역사를 의식하면서 산 인물이었습니다."

정도전이 현대 정치인들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려는 자세, 국제격변기에 강대국의 이익에 휩쓸리지 않고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 그리고 정치의 목표를 도덕사회의 실현으로 인식한 철인정치사상 등이 그것.

"정도전은 집권에는 성공했으나 수성에는 실패하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왕조국가체제와 명나라 대국의 간섭 등의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지 못한 그의 정치역량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에 관계 없이 정치가의 영광은 민(民)을 위한 헌신에 두어야 합니다."

정도전의 생애와 사상을 복원하는 데는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에 큰 빛을 줬다. 그러나 사료의 공백과 편파적인 문헌기록의 함정을 건너뛰기 위해서는 사료에 대한 지적 통제와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했다. 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현장에서 살아 꿈틀거렸던 열정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통해 투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박천홍 기자



## 역경을 이겨낸 지구 한바퀴의 뱃길

《그래, 나는 바다에 미쳤다》 펴낸 강동석씨

지난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단독 요트 세계일주를 마친 재미교포 강동석씨(29)가 책을 펴냈다. 《그래, 나는 바다에 미쳤다》(한국문원)라는 도전적인 제목의 이 책은 LA에서 시작해 하와이, 호주, 남아프리카, 세인트헬레나, 파나마, 일본을 거쳐 부산에서 대장정을 마친 7만여km 뱃길의 항해일지다. 항해에서 겪었던 파도와 바람과의 싸움, 고독과 외로움, 세계 각지의 풍광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담았다.

"UCLA에 입학한 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가 회생하고 나니 삶과 죽음이란 찰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생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삶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어느날 조셉 콘라드의 《바다의 거울》에서 '그대 정녕 지구의 나이를 알고 싶다면,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의 얼굴을 보라'라는 구절에 매료되어 항해에 관한 책을 뒤지게 되었다. 무작정 대학내 요트클럽에 가입하고 수영과 HAM(아마추어무선통신)을 배우는 등 항해 준비를 시작해 91년에 태평양 횡단에 나섰다.

태평양횡단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세계일주에 도전한 그는 항해 도중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을 비롯해 LA의 교민과 하와이, 사모아, 피지 등지의 교민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재도전할 수 있었다.

"끝없는 바다와 파도, 바람을 헤쳐 닿은 곳에는 인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보다 그곳의 사람들이 더욱 좋았습니다."

강씨는 풍랑에 훼손된 요트의 보수와

식량 보충 등을 위해 15곳에 기항했고, 그곳에서 세계 각국의 요트인, 교민, 현지인 등과 만나 우정을 나누었다. 최연소 요트 세계일주자인 브라이언 콜드웰과 웨인, 케티부부는 바다에서 만난 동지이자 경쟁자.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나아가고 싶다해서 바람을 일으킬 수 없으며 폭풍우를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그는 오히려 자연이 그 너른 품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인내심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파도를 넘으면 또다른 파도가 오듯이 인생의 역경은 또다시 오는 법입니다. 역경에 단련될 수는 없지만 역경을 두려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요트맨들은 바다로 다시 나가기 위해 육지로 돌아온다. 바다로 나갈 힘과 장비를 비축하기 위해서다. 이제 그는 대학에 복학하여 전공인 역사를 공부하고 졸업후 교사가 될 생각이다.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매력적인 일이지만, 3개월의 방학기간에는 바다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정미 기자

